

기침과 각혈

김예원/김예원내과의원장

이번에는 결핵 특히 폐결핵에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상 및 이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결핵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다가 우연히 신체검사 등에서 X선상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증상은 크게 전신적인 증상과 호흡기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신증상으로는 발열,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이 있으며 서서히 발생하여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결핵이 발병하여 폐에서 건락성 괴사가 일어나면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기침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서 처음에는 마른 기침으로 시작하지만 후에는 점액성 또는 화농성 객담이 나타나고 혈담이 보이기도 한다.

마른 기침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발작적으로 나오거나 밤에 기침이 심하여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코데인 등의 진해제를 사용하여 기침 반사를 억제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 담배는 물론 끊도록 하여야 하고 심하게 터져나오는 기침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입을 다문채로 기침을 하게 하거나 숨을 내쉬는 끝에 기침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침과 더불어 화농성 객담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결핵 병소로부터 분비물이나 세포 등이 이탈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는 결핵 자체를 치료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별로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심하게 터져나오는 기침을 가급적 피하도록 지도하고 심호흡을 하여 강하게 숨을 내쉰다거나 자주 체위를 바꾸면서 누워있는다든지 목을 청소하는 기분으로 객담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객담이 진하거나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수분섭취를 충분히 하며 거담제 등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폐기종 등의 폐색성 폐질환이 있거나 노인과 같이 쇠약한 환자에서는 객담 배출이 잘 되도록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경우 객담을 용해시켜 용이하게 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무제 요법을 쓰거나 심한 경우에는 기관절재로 객담을 뽑아주는 방법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다.

폐결핵에서 나타나는 각혈은 대개 소량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이거나 간혹 나타나는 소량의 각혈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한 공동성 폐결핵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폐질환에 건락성 괴사가 일어나고 폐혈관에 혈관염이 동반되면서 건락성 괴사로 형성된 공동내에 폐동맥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혈관염에 의해 혈관벽이 파괴되어 약해지면서 동맥류를 만든다. 드물기는 하지만 중증의 공동성 폐결핵의 경우 큰 폐동맥이나 공동내의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대각혈이나 실혈에 의한 속크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각혈이 심하게 나타나면 환자로 하여금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가벼운 진정제를 투여하여 불안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비스듬히 누운채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출혈이 있다고 생각되는 폐부위가 아래로 되도록 누워있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혈액이 밀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반대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출혈이 어느쪽 폐에서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 자신이 출혈이 일어난 부위를 느껴서 알 수 있고 청진을 하여보

면 천명이 들리는 부위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흉부 X-선상에 활동성 병변이나 공동이 있는 부위로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가슴에 얼음주머니를 대는 것은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리고 속크상태를 악화시키는데 거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 안정에도 방해가 되므로 소량의 코데인이나 진해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억제시켜 놓으면 피덩어리가 기도를 막아서 무기폐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출혈이 24시간 이상 계속될 때는 비타민 K나 지혈제를 써 볼 수도 있으나 효과는 확실치 않고 실혈이 심하여 빈혈이나 속크에 빠질 염려가 있으면 수혈도 고려해야 된다.

이상의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출혈이 계속되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면 개흉술을 시도하여 출혈 부위를 절제할 수 밖에 없다. 이때는 수술하기 전에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폐의 어느 부위에서 출혈하는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겠다. 卍

결핵은 아직도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1. 비시지(결핵예방) 접종을 합니다.

어린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가능하면 출생후 4주 이내, 늦어도 1년 이내) 접종합니다.

2. 몸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습니다.

기침을 오래 계속하는 등 몸에 이상이 있으면 결핵검사(가슴의 엑스선검사, 객담의 결핵균검사)를 받습니다.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환자는 철저한 치료를 받습니다.

검사결과 결핵환자로 밝혀지면
 1)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2) 빠뜨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3) 정해진 기간동안 꾸준히
 결핵약을 사용하면 거의 틀림없이 결핵을 고칠 수 있습니다. 결핵약을 사용하는 기간은 보통 처방에 따라서는 1년 이내일 수도 있습니다.